

中企 62.6% “중장년 채용계획 있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중장년 채용계획이 있으며, 이들 기업이 중장년에게 지금 하겠다는 보수는 월 27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구인구직포털 벼룩시장·일반전국과 공동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 238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중소·중견기업의 중장년 채용계획 및 채용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중장년에게 지금 하겠다는 보수는 월 27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조사 결과(월 274만원)와 거의 동등했으며, 우리나라 평균임금 287만원(2017년 기준, 통계청)의 92.3%수준이다.

지급예정 연봉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36.0%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뒤이어 ▲3000만원이상~4000만원 미만(24.4%), ▲4000만원이상~5000만원 미만(15.2%) 순으로 조

사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62.6%)은 '올해 중장년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조사결과(64.2%) 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다. 직종별 채용계획을 보면 '단순노무직'이 23.3%로 가장 수요가 많았고 '영업·마케팅'과 '사무관리직'이 각각 20.4%, '생산·품질관리직' 19.9% 순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채용 시 우선 고려사항은 '성실성·조직충성도 등 인성'(34.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기업문화, 기준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회복'(24.1%), '건강'(15.7%), '직무역량·업무전문지식'(15.7%)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장년 구직자들이 구직자료시청으로 호소하는 '나이'를 우선 고려한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해 채용기업과 중장년 구직자가 느끼는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채용이 어떤 경로를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42.3%가 '워크넷'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공공취업지원기관을 통해 채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취업사이트'(26.8%), '지인소개 등 인적네트워크'(24.8%)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공공취업지원기관 활용이 5.5% 늘어난 반면, 지인소개 등 인적네트워크 활용은 2.4% 증가에 그쳤다. 협력센터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중장년 채용은 지인소개와 같이 인맥을 활용

5인 이상 중소기업 238곳...“임금 월 276만원”

중장년 채용 시 성실성·충성도 등 인성 우선

중장년 채용기업 69.9% “경영성과 도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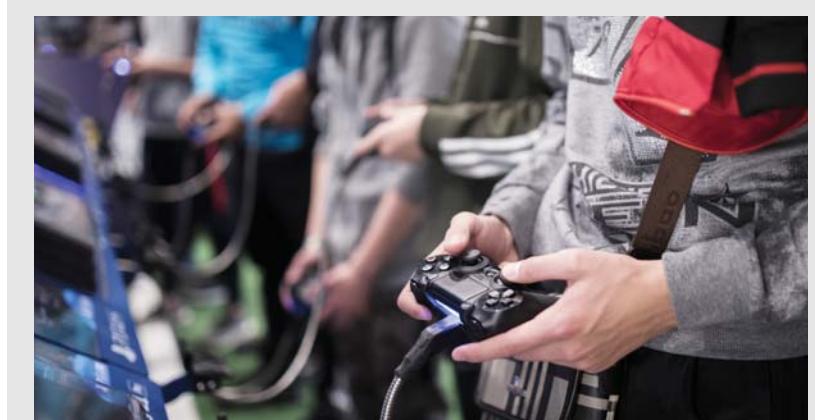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사결과는 자금의 변화된 채용 트렌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음성적인 인맥활용 채용보다 투명한 절차를 통한 공개채용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장년 채용 시 우선 고려사항은 '성실성·조직충성도 등 인성'(34.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기업문화, 기준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회복'(24.1%), '건강'(15.7%), '직무역량·업무전문지식'(15.7%)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장년 구직자들이 구직자료시청으로 호소하는 '나이'를 우선 고려한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해 채용기업과 중장년 구직자가 느끼는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한 협력센터 소장은 "최근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별적 이직에 정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며 "법안 통과취지에 적극 부응하여 산하 전경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장년 근로자가 스스로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지원 서비스 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장년 채용경험이 있는 기업 10



‘게임중독’ 5월 WHO 질병

결정 유력…게임업계 우려↑

문체부 “개정안 통과 전망…27일께 결과 발표 관측”

게임중독이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될지 여부가 이르면 현지시각 27일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외 안팎에서는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지정되리라는 시각이 유력하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규제가 강화돼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일 게임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28일 현지시각 스위스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ICD는 모든 질병 종류와 이에 따른 신체 손상 정도를 나눠놓은 치점으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게임중독이 질병코드로 정식 등재되면 각국은 2022년부터 WHO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병코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게임중독이 질병인가에 대해서는 논점이 갈린다. 찬성 측에서는 게임중독으로 인한 범죄 등 피해 사례 발생, 조기 치료 필요성, 게임산업 전진화 유도 등을 이유로 질병으로 등재하는 데 환영하고 있다. 반면에 게임과 게임중독의 직접 연관성 증거 부족, 의료과잉 가능성, 게임산업 위축 등을 근거로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

이에 WHO는 게임중독의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 지난해 게임이용장애에 'F51'이라는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올해 5월 총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WHO는 게임중독을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WHO가 이번 총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중독의 질병 지정에 대해 WHO 집행이사회에서도 미국 정도만 반대한 상황이라 이번 총회에서는 최종 통과가 유력하다"며 "게임중독 관련해서는 일정상 현지시각 25일부터 논의가 시작되는데 이르면 27일께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게임중독의 질병 등재에 반대 입장이다. 문체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29일 WHO에 게임중독의 질병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청소년 게임 과몰입은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 태도나 학업부담, 교사와 또래 집단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오직 게임 때문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 산업인에 따라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WHO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산업에 대한 세계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2023년부터 3년간 한국 게임 산업이 일제히 경제적 손실은 최대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셧다운제 등으로 한국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강한 나라인데 WHO에서 질병으로 지정되면 인식이 더욱 나빠질까 우려된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런 인식이 굳어지면서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발표가 나오면 미국 등 세계 게임협회 등과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보험사, 1분기 순익 급감…“인구구조 변화·세제혜택 축소 등 복합적”

주요 보험사들의 1분기 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비롯해 세제혜택 축소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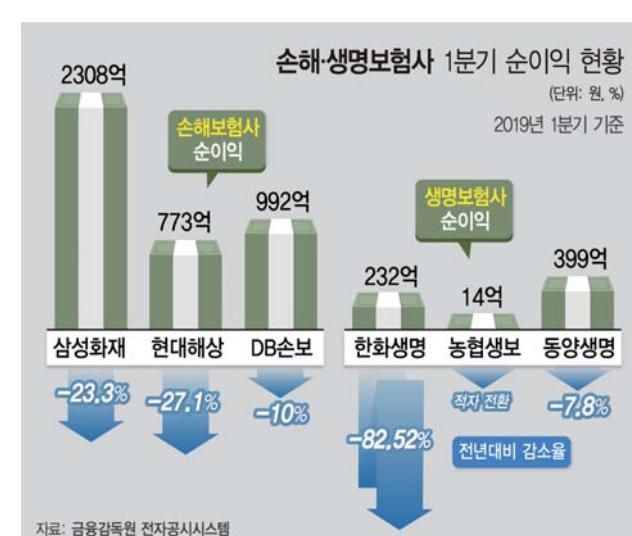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급감했다. 삼성화재의 1분기 순이익은 23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했다. 현대해상은 773억 원, DB손보는 992억 원으로 각각 27.1%, 10% 감소했다.

생명보험사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을 증가시킨 것

82.52% 급감했다. 농협생명보험은 지난해 1분기 204억원 흑자에서 올해 1분기 14억 적자로 전환했다. 동양생명도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7.8% 줄어든 순이익 399억원을 기록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한화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은 각각 85.3%, 85.0%, 86.1%, 86.5%, 81.8%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상승한 수치다.

생명보험사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을 증가시킨 것



이유로 기초의 지속과 환해

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성장세 둔화와 수익성 악화는 인구구조 변화 추세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구조 변화 추세 이외에도 새로운 회계제도와 지급여력 제도 도입, 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 세제혜택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그대로의 맛과 신선함!